

정부 압박에도 사직 전공의 '무응답'...현장선 피로 호소

광주·전남 상급병원 전공의 사직 8일째...200여명 복귀 안해 전남대·조선대병원 신규 외래 진료 안받고 입원·수술 연기·축소

정부가 압박 강도를 높여도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고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지역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개인 SNS에서 "사직이 아니라 순직할 지경이다.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절규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들이 병원을 떠난지 8일째 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27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8일째인 이날까지 전남대병원 분원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319명 중 28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200명 이상이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조선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42명 중 113명이 복귀 명령 불이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29일을 복귀마지노선으로 하는 최후통첩을 했으나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모두 마치고 전남 전국 모든 수련병원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다.

보건복지부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불이행 확인서'를 재차 청구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광주지검 뿐 아니라 광주지검 소속 순천지청·해남지청·장흥지청 등에서도 검·경 실무회의를 열어,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

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들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전임의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극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27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님, 부디 이 사태를 좀 끝내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한계 상황에 몰린 병원 상태를 알렸다.

조 교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응급의학과 전공하고 대학병원에 취직할 게 죄는 아니지 않나. 코로나 때부터 나라에 뭘 일만 생기면 제 몸이 갈려 나간다"면서 "싸우는 X 따로, 이득 보는 X 따로. 지나고 보면 고생한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더라"고 탄식했다. 이어 "총이든, 펜이든 얼른 꺼내달라"고 촉구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외래 진료와 입원, 수술 등을 연기·축소했다. 경증수술은 미루고 새로운 외래진료 예약은 받지 않고 응급·위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차 병원으로 갈수 밖에 없는 환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전남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긴 김영심(여·68)씨는 119를 불러 그동안 진료를 받아오던 2차 병원으로 가려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의료대란 때문에 김씨가 지정한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받아줘야 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소방대원의 답변이었다. 결국 30~40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김씨는 남편의 차를 타고 직접 응급실로 찾아가야 했다.

김씨는 "CT와 MRI 검사를 통해 머리에서 조그만 혹을 발견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면서 "혹시 수술을 해야 했으면 큰일 날 뻔 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병호 기자 jusbh@



새학기 교과서 광주대동교 교사들이 27일 새학기를 앞두고 광주시 서구 매월동 대동교 도서관에서 교과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청정 완도인데...흡연을 '전국 최고'

30.7% 차지...광주 동구 '고위험 음주율' 전국 최저
신안 비만율 41.8%...광주 남구 '걷기 실천율' 64.1%

질병관리청 2023년 건강조사

완도가 지난해 전국 흡연율 1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27일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2023년 통계집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별 흡연율은 완도가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 포천(29.8%), 강원 정선(29.0%)이 뒤를 이었다.

광주지역은 서구(19.1%)가 가장 높았고 동·남구(18.8%), 북·광산구(18.3%) 순이었다. 전남에서는 완도 다음으로 진도(26.3%), 장성(22.3%) 순으로 높았고 곡성(16.5%)이 가장 낮았다.

흡연에는 일반 관련형과 액상형 흡연이 모두 포함됐다.

고위험음주율(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은 광주 동구가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국 수치로는 경남 합천(21.6%)이 가장 낮았다.

광주는 서구가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광산구(11.4%), 남구(10.3%), 북구(8.9%)가 뒤를 이었다.

비만율은 전국에서 강원 인제(44.5%)가 가장 높았으며 경기 과천(22.9%)이 가장 낮았다.

광주에서는 광산구(31.9%)가 가장 높았고 북구(29.2%), 서구(28.4%), 남구(27.8%), 동구(24.3%) 순이었다. 전남은 신안(41.8%), 진도(38.3%), 화순(37.7%) 순으로 높았다.

올해 맨발걷기 산책로 확대에 나선 광주시 남구(64.1%)의 경우 '걷기 실천율'이 5개구 중 가장 높았다. 북구(46.4%), 동구(44.7%), 광산구(37.8%) 순이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매년 5월부터 7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시·군·구별 9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이환, 삶의 질, 의료 이용 등의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지역미 질병관리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에서 직접 관할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증진하기 위해, 매년 국가와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표준화된 유일한 조사로서,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와 원시 자료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소 전략 마련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학계에서도 관련 연구에 많은 활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조오섭 "광주 북갑 정준호 후보 불법 선거운동 의혹"

정준호 "불법 전화홍보 사실 없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광주 북갑 갑내 경선 상대였던 정준호 예비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시 선관위는 최근 검찰에 정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에 정 후보의 불법·부정 선거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 후보가 선거사무소 내에서 20여명의 전화 홍보원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준호 예비후보는 "저희 선거사무소는 불법적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서 "조 의원은 언론관계자의 말을 빌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 이를 자체해결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병호·김혜나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품격 높은 문화 관광도시 —
새롭게 변화하는 광양

광양시 GWANGYANG-SI